

〈일반논문〉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吳少誠의 태도를 중심으로-

정 병 준 *

〈목차〉

- I. 머리말
- II. 吳少誠의 出自와 淮西 장악
- III. 吳少誠의 외부확장 기도
- IV. 吳少誠과 德宗의 군사충돌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4왕의 난 이후 정원 시기(785~805)에 淮西節度使 吳少誠이 보인 태도를 통해 당시 번진체제의 기본구조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오소성은 할거 번진 이면서도 다른 할거 번진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즉 기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주변으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매우 공격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물론 다른 할거 번진들도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소성은 그 행동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만큼 덕종도 오소성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을 하였다.

정원 15년(799) 8월 오소성이 陳許 번진을 공격하자 마침내 10월 덕종이 17개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변진에게 오소성 토벌을 명하였다. 그 안에는 할거 변진인 成德·幽州·魏博·淄靑도 있었는데, 이는 변진들에 대한 당시 덕종의 한계를 보여준다. 오소성에 의한 혼란을 틈 타 네 변진도 언제든 세력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듬해(800) 5월 당군이 오소성에게 대패하자 산남동도절도사 우적이 남쪽의 漢水 남쪽 지역을 점거할 뜻을 품었는데, 이는 당조와 변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누구든 반역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선이 조금 교착되자 같은 해(800) 10월 오소성이 갑자기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토가 자칫 다른 변진에게 위협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쟁이 종결되었다. 덕종의 오소성 토벌 실패는 아직 조정이 할거 변진을 제압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당시 할거 변진의 세력은 조정보다 우위에 있던 것이 아닐까.

□ 주제어

당 덕종, 회서 변진, 오소성, 할거 변진, 이사고

I. 머리말

大曆 14년(779) 5월 즉위한 덕종의 변진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즉위 초기에 할거 변진을 주된 대상으로 변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변진들이 일으킨 ‘4왕의 난’에서 덕종이 완패를 하였다. 둘째는 앞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후 할거 변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면서 다른 일반 변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둔 정원 시기(785~805)이다.¹⁾

또한 4왕의 난 이후 정원 시기에 변진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떨쳤는가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나와 있다. 첫째는 4왕의 난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변진들이 중앙을 경시·발호하는 것이 한층 심해졌다고 보는 日野開三郎 등의 견해이다.²⁾ 둘째는 일반 변진과 구별되는 할거 변진의 반응적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愛宕元의 견해이다.³⁾ 셋째는 할거 변진 이외의 다른 변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마침내 중앙과 변진의 관계에서 조정이 주도적이고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보는 劉玉峰 등의 견해이다.⁴⁾

이 글은 앞의 견해들을 의식하면서 정원 시기에 淮西節度使 吳少誠이 보인 태도를 통해 당시 변진체제의 기본구조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오소성은 할거 변진이면서도 다른 할거 변진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즉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다. 물론 다른 할거 변진들도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
- 1) '4왕의 난'은 '四王二帝의 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종결된 것은 황제를 칭한 淮西의 李希烈이 부하에게 독살된 정원 2년(786) 4월이다.
 - 2)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98쪽; 김문경, 「唐代 高句麗遺民의 藩鎮」, 『唐代的 社會와 宗教』, 승전대학교출판부, 1984, 41쪽. 또 C. A. Peterson, "Court and province in mid-and late T'ang," in Denis Twitchett,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I*. London · New York ·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509-510(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譯, 『劍橋中國隋唐史(589-90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509쪽)에서는 4왕의 난 이후 안사의 난에 따른 상황이 확정 혹은 심화되었다고 한다.
 - 3) 愛宕元, 「唐代後期の政治」, 松丸道雄 等 編, 『中國史』 2, 山川出版社, 1996, 457쪽.
 - 4) 劉玉峰, 「評唐德宗“姑息”藩鎮說」, 『學術月刊』 1993-7, 71~75쪽; 劉玉峰, 『唐德宗評傳』, 齊魯書社, 2002, 55~65쪽 등. 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憲宗과 藩鎮」(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엮음, 위진수당사학회 역, 『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 203쪽의 견해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즉 그가 황제위에 올랐을 때보다 당 제국을 훨씬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아니지만, 오소성은 그 행동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주변으로의 세력 확장에 있었는데, 이는 당조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반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덕종도 오소성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을 하였다.

II. 吳少誠의 出自와 淮西 장악

오소성이 淮西節度使 李希烈 밑에서 활동할 때 변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요서 평로군에서 분리되어 회서로 들어온 이른바 ‘평로군 집단’이었다.⁵⁾ 따라서 먼저 그 역시 평로군 출신인지가 궁금하다.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에 의하면

오소성은 幽州 潞縣 사람이다. 부친은 魏博節度使 都虞候가 되었다. 오소성은 부친의 훈공으로 아들 한 명에게 官이 제수될 때 王府 戶曹로 釋褐하였다(394쪽).

5)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절도사 이희열을 필두로 한 군사집단 세력이다. 이들 ‘평로군 집단’의 성격과 역할 등에 관해서는 樊文禮, 「唐淮西節度使略論」, 『煙臺師範學院學報(哲社版)』 1994-2, “이희열의 稱帝와 吳氏(즉 오소성과 吳少陽)의 할거통치는 모두 이들 군대를 군사적 기초로 하였다”(28쪽), “淮西鎮은 李忠臣 이래 河朔平盧軍人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강대한 군사역량을 건립하였다”(30쪽), “이희열의 칭제 등은 필수적으로 이들 군사집단의 이익 보전을 전제로 하였다. 누구든 그들의 이익을 위배하면 축출되거나 피살되었다. 오씨의 할거통치 또한 이들 군사집단을 사회기초로 한 것이다. 이들 군사집단이 소멸되거나 흩어지면 회서의 할거통치 또한 필연적으로 종료되었다”(33쪽); 武強, 「唐淮西節度使相關問題考論」, 『史學月刊』 2010-4, 46~47쪽, 50~51쪽, 53쪽, 56쪽;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성격」, 『중국사연구』 126, 2020, 58~62쪽, 66쪽 등 참조.

라고 하여 그는 유주 노현 출신이라고 한다. 평로군에서 분화된 군장들 중에는 유주 출신들이 여러 명 보이는데, 예컨대 평로군 출신으로 회서절도사에 오른 李忠臣은 “대대로 幽州 薊縣에 살았다”⁶⁾라고 하고, 평로군 출신으로 劍南西川節度使를 거쳐 邠寧節度使에 오른 高崇文은 “그 선조가 渤海人이고 고승문은 幽州에서 태어났다”⁷⁾고 한다.⁸⁾

그런데 오소성의 부친은 魏博 번진의 都虞候였고, 그가 공을 세워 아들 한 명에게 官이 제수될 때 오소성이 이 혜택을 누려 王府의 戶曹로 釋褐⁹⁾하였다고 한다.¹⁰⁾ 이때 도우후란 군대의 감찰 책임자를 말하고,¹¹⁾ 王府의 호조는 정7품상이다.¹²⁾ 이로 보면 오소성이 평로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오소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회서로 들어왔는가. 그의 활동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荊南節度使 庾準에게 군장으로 발탁된 이후이다. 즉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을 계속 보면

후에 荊南에 이르니 절도사 庾準이 뛰어난다고 여겨[奇] 머물게 하여 衙門

6) 『구당서』 권145, 이충신전, 3939쪽.

7) 『구당서』 권151, 고승문전, 4051쪽.

8) 그 외 河南節度使 田神功과 鳳翔節度使 邢君牙 등은 하북 출신이다.

9) 당대에 과거에 합격하면 ‘出身’이라고 하고, 이어 吏部 시험(즉 銓選)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것을 入仕 혹은 釋褐이라 하였다. 즉 傅璇琮, 『唐代科舉與文學』, 陝西人民出版社, 1986, 492쪽 참조.

10)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서는 “幽州潞人, 以世陰爲諸王府戶曹參軍事”(6002쪽)라고 한다.

11) 虞候 및 都虞候에 관해서는 嚴耕望, 「唐代方鎮使府僚佐考」, 『唐史研究論考』, 龍門書店, 1969, 220~228쪽; 張國剛, 「唐代藩鎮軍將職級考略」,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文津出版社, 1994, 169~170쪽; 정명준, 「安史의 亂과 李正己」, 『동국사학』 37, 2002, 547쪽 등 참조.

12) 『唐六典』 권29, 親王府, 조, 中華書局, 730쪽; 김택민 주편, 『역주 당육전』 상, 신서원, 2003, 784쪽의 [표 44] 친왕부.

將으로 삼았다. 유준이 입조할 때 함께 갔는데, 襄漢에 이르렀을 때 梁崇義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서 반란의 마음[異志]이 있음을 알고 [건중 2년 6월] 오소성이 그를 사로잡을 계락을 몰래 꾸며 궁궐에 상주[陳]하려 하였다(3945~3946쪽).

라고 한다. 유준이 江陵尹¹³⁾·荊南節度使를 지낸 것은 덕종 建中 원년(780) 3월에서 건중 2년(781) 2월 사이이므로¹⁴⁾ 오소성이 유준에 의해 형남의 衙門將으로 발탁된 것은 그 사이일 것이다.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 의하면 “형남에 客으로 가자 절도사 유준이 그릇으로 여기고 머물게 하여 牙門將으로 삼았다”(6002쪽)라고 한다. 이때 아문장이란 절도사의 깃발이 있는 군영의 문(牙門 혹은 衙門)을 지키는 군장을 말한다.¹⁵⁾ 그리고 오소성이 유준을 따라 입조하면서 山南東道の 치소인 襄州¹⁶⁾를 지나다가 그 절도사 양승의가 반란의 마음을 가졌음을 알고 몰래 양승의를 사로잡을 계책을 상주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소성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은 듯하다. 이후 유준이 절도사를 파직할 때까지 오소성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 반면, 『자치통감』 권227, 건중 2년(781) 6월 조를 보면 오소성이 양승의를 사로잡을 계책을 가지고 淮西節度使 李希烈을 만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그 시기는 유준이

13) 『신당서』 권40, 地理志4, 山南道, 江陵府·江陵郡 조, 1027쪽 참조.

14) 『구당서』 권12, 德宗本紀上, 건중 원년 3월 조, “以前司農卿庾準爲江陵尹·兼御史中丞·荊南節度使”(325쪽); 同, 건중 2년 2월 조, “桂管觀察使李昌巖爲江陵尹·兼御史大夫·荊南節度等使, 以前荊南節度使庾準爲左丞”(328쪽). 吳廷燮, 『唐方鎮年表』 2, 荊南에서도 이들 기사에 의거하여 유준이 건중 원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형남절도사를 역임하였다고 보았다(中華書局, 1980, 685쪽).

15) 宮崎市定, 「宋代州縣制度の由來とその特色」, 『宮崎市定全集』 10, 岩波書店, 1992, 219쪽(押牙); 嚴耕望, 「唐代方鎮使府僚佐考」, 229쪽 등 참조.

16) 『신당서』 권40, 지리지4, 山南道, 襄州·襄陽郡 조, “縣七, 襄陽·鄧城·穀城 …”(1030쪽).

형남을 떠난 후로,

형남의 牙門將 오소성이 양승의를 取할 계책을 가지고 이희열을 만나자
[干] 이희열이 오소성을 선봉[前鋒]으로 삼았다(7302쪽).

라고 한다. 이는 오소성이 공식적으로 회서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장면이다. 이희열은 앞선 代宗 大曆 14년(779) 3월 이충신을 몰아내고 淮西節度留後(임시 책임자)가 되었다가¹⁷⁾ 같은 해인 덕종 대력 14년(779) 5월 정식 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오소성이 이희열을 만나자 이희열이 그를 선봉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때는 덕종이 이희열을 漢南·漢北兵馬招討使·南平郡王에 제수하여 여러 번진 군대를 거느리고 양승의를 토벌하게 한 직후이다. 즉 그 전 달(781년 5월)에 덕종과 할거 번진 간에 대규모 군사충돌이 시작되어 6월 李正己가 徐州의 대운하를 차단하고 양승의가 襄州의 漢水를 가로막아 남북을 연결하는 조운로가 모두 단절되자 같은 달 덕종이 이희열에게 양승의 토벌을 명하였던 것이다.¹⁸⁾

이에 대해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에서는 앞의 『자치통감』 기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전한다. 즉

마침 이희열이 처음으로 절도사[節制]를 제수 받아 한마음으로 공을 세우려 하였는데, 오소성의 계책을 보고 이에 오소성의 식견을 기록하여 상주하자 [錄奏] 조서를 내려 위로하며 경계시키고 파격적으로 通義郡王에 봉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승의가 거명하자 이희열이 명을 받들어 전적으로 토벌하면서 오소성을 前鋒으로 삼았다.¹⁹⁾

17) 『자치통감』 권225, 대력 14년 3월 조, “以希烈爲蔡州刺史·淮西留後”(7255쪽).

18) 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 6~7쪽;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성격」, 70쪽.

라고 하여 덕종이 이희열에게 양승의 토벌을 명하기 전에 오소성이 이희열에게 양승의를 사로잡을 계책을 알리자 이희열이 그 계책을 덕종에게 상주하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오소성은 유준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덕종에게 상주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바꾸어 이희열에게 계책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덕종이 파격적으로 오소성을 通義郡王에 책립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안이 그만큼 중대했다는 것을 말한다.²⁰⁾

이러한 과정이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서는 일괄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즉

유준을 따라 入朝하면서 襄陽을 지나가다가 양승의가 필시 叛할 것을 헤아리고 몰래 계책을 세워 장차 천자에게 헌상하려고 하였는데, 이희열이 그 일을 황제에게 알리자 조서를 내려 칭찬하고 통의군왕으로 발탁하여 봉하였다(6002쪽).

라고 하는데, 이희열이 황제에게 양승의를 잡을 계책을 올린 것은 오소성을 만난 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통감』 권226, 건중 2년 3월 조에 의하면 “[양승의가 이정기와 결탁하여 불온한 태도를 보이자] 淮寧(=淮西)節度使 이희열이 누차 토벌하기를 청하였다”(7298쪽)라고 하는데, 오소성이 이희열을 만난 것은 이 무렵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 의하면

19) 『자치통감』 권227, 건중 2년 6월 조, “[梁崇義]竟不受詔, …… 進李希烈爵南平郡王, 加漢南·漢北兵馬招討使, 督諸道兵討之. …… 荆南牙門將吳少誠以取梁崇義之策干李希烈, 希烈以少誠爲前鋒”(7302쪽).

20) 이희열의 경우에는 한남·한북병마초토사에 임명되면서 郡王(즉 남평군왕)에 봉해졌다.

양승의가 反하자 이희열이 오소성을 선봉으로 삼았다. 일이 평정되자 實封 50호를 하사하였다(6602쪽).

라고 한다. 즉 양승의가 反하였다는 것은 건중 2년 6월 漢水의 조운로를 막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이지만, 같은 달 덕종이 이희열에게 토벌을 명하자 이희열이 오소성을 선봉장으로 삼았던 것이라 하겠다. 이희열은 잠시 형세를 관망하다가 같은 해 8월 단번에 양승의를 평정하였는데,²¹⁾ 덕종이 오소성에게 실봉 50호를 내린 것으로 보면²²⁾ 그 과정에서도 오소성이 큰 공헌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오소성이 회서와 인연을 맺는 과정에 대해 『太平廣記』 권154, 定數9, 오소성 조에서는 앞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오소성이 貧賤한 때 官健이 되었다가 도망가 [蔡州] 上蔡[縣]²³⁾에 이르렀지만, 춤고 굶주려 같은 무리에게 구걸을 하였다. 상채현의 獵師 몇 명이 산중에서 사슴을 잡아 …… 獵人들이 바야흐로 모여 먹으려고 하는데, 홀연히 공중에서 말하기를 “뭇 尙書를 기다려라”라고 하므로 사람들이 놀라 먹지 않았다. …… 잠시 후 또 한사람의 脚力이 작은 보따리를 가지고 지나다가 사냥꾼들을 보더니 인사[揖]하고 앉았다. [사냥꾼들이] 물으니 성이 뭇라고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 오소성이 말하길 “나는 군대의 健兒였는데, 잡히지 않고 일개 軍졸로 쓰인다면 죽하다. 어찌 부귀를 얻겠는가”라고 하고 크게 웃으며 이별하고 떠났다. 몇 년 후 節度使·兼工部尙書가 되어 사람을 보내 사냥꾼들을

21)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건중 2년 8월 조, 330쪽; 『자치통감』 권227, 건중 2년 8월 조, 7307쪽.

22)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3946쪽에서는 실봉 5천 호라고 보이지만(3946쪽),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호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23) 『신당서』 권38, 지리지2, 河南道, 蔡州·汝南郡 조, “縣十, 汝陽·朗山·遂平·上蔡·新蔡 ……”(988~989쪽).

찾게 하였다(中華書局, 1107쪽).

이때 官健은 직업 군인을 말하는데,²⁴⁾ 그가 처음에 어느 군대의 관건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혹 그가 王府의 戶曹가 되기 전의 상황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채주에 이르러서도 빈천했다는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앞의 正史類에 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오소성과 평로군의 관련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해 두겠다.

이희열은 이듬해인 건중 3년(782) 7월부터 서서히 반역의 태도를 보이다가 같은 해 11월 네 번진이 왕을 칭하기 전 달인 10월 네 번진과 연계하며 반란으로 나아갔다.²⁵⁾ 그러면서 오소성은 이희열에게 크게 기용되어 그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고 한다.²⁶⁾ 그가 평로군 집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이희열이 반란을 일으킨 즈음과 그 이후 그가 번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듬해(783) 10월 朱泚가 溘原 병사들의 추대를 받아 장안에서 황제를 칭하면서 반란은 정점을 향해 달렸다.

흥원 원년(784) 정월 피난 중의 덕종이 패배를 선언하면서 4왕의 난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같은 달 이희열은 황제를 칭하고 당조와의 대결을 이어가다가 2년 후인 정원 2년(786) 4월 부하 장수인 陳仙奇²⁷⁾에게 독살되었

24) 『자치통감』 권225, 대력 12년 5월 신해일(1일) 조의 詔에 “其召募給家糧·春冬衣者, 謂之官健”(7245쪽). 관련 연구로는 張國剛, 「唐代健兒制度考」,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등 참조.

25) 『신당서』 권7, 덕종본기, 건중 3년 10월 조, “李希烈反”(188쪽). 단 『구당서』 덕종본기상 및 『자치통감』 해당 연월 조에는 특별히 反하였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 전후 상황에 관해서는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的 稱帝와 그 성격」, 73~75쪽 참조.

26)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後希烈叛, 少誠頗爲其用”(3946쪽);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 “希烈叛, 少誠爲盡力”(6002쪽).

27)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 4월 조, “牙將陳仙奇”(373쪽); 『신당서』 권

다.²⁸⁾ 뒤에 보이듯이 진선기는 親唐派에 속한다.²⁹⁾

같은 달(4월) 덕종이 진선기를 회서절도사에 임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소성이 진선기를 죽이고 변진을 장악하였다. 즉 『구당서』 권 145, 오소성전에 의하면

이희열이 죽자 오소성 등이 처음에 진선기를 추대하여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고 이에 [같은 달] 조정이 진선기를 그렇게 임명하였으나 곧이어 오소성에게 살해되고 군인들이 오소성을 추대하여 절도유후의 일을 맡게 하였다. 조정은 마침내 申·光·蔡等州節度觀察兵馬留後를 제수하였다가 곧이어 정식으로 절도사를 제수하였다(3946쪽).

라고 한다. 다른 문헌을 참조하면 오소성이 진선기를 살해하고 회서절도유후에 임명된 시기는 같은 해(786) 7월인데, 그가 이희열의 복수를 위해 진선기를 죽였고 그때 그 직위는 淮西兵馬使였다고 한다.³⁰⁾ 여기서 ‘복수’라는 것은 그가 이희열을 중심으로 한 ‘평로군 집단’과 이미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엿보게 한다. 즉 그는 원래 평로군 출신은 아니었으나 그 집단과 이미 일체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225중, 이희열전, “親將陳仙奇”(6440쪽);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4월 조에서는 “大將陳仙奇”(7468쪽).

28)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4월 조, 7468~7469쪽. 그 자세한 과정은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忠臣, 李希烈 열전 譯註, 492~493쪽; 同, 「唐 德宗代 淮西 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성격」, 86쪽, 96~97쪽 참조.

29) III장 전반부에 서술한 진선기의 防秋兵 파견 등 참조.

30)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7월 조, “淮西兵馬使吳少誠殺陳仙奇, 自爲留後. 少誠素狡險, 爲李希烈所寵任, 故爲之報仇. 己酉, 以虔王諒爲申·光·隨·蔡節度大使, 以少誠爲留後”(7470쪽);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 7월 조, “己酉, 以虔王諒爲申光隨蔡節度大使, 以淮西兵馬使吳少誠爲蔡州刺史·知節度留後”(353쪽). 한편, 『구당서』 권145, 이희열전에서는 “別將吳少誠”(3945쪽)이라고 보인다.

이후 오소성의 행동은 이들 집단의 속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786) 7월 조 등에 의하면 오소성이 진선기를 죽인 후 “스스로 留後가 되었다”³¹⁾라고 하는데, 오소성이 거사를 주도한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가 정식 절도사에 제수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정원 5년(788)이다.³²⁾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경우에 비해³³⁾ 매우 긴 시간이므로 그 배경이 궁금하다. 여기에는 오소성이 조정에 순종한 진선기를 죽인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절도사에 오른 초기부터 당조에 대해 반역적 태도를 보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오소성이 절도유후에 오르자 관하의 여러 州들이 이탈하였다. 즉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2년(786) 조를 보면

[6월]³⁴⁾ 淮西兵馬使 오소성이 그 절도사 진선기를 살해하고 스스로 유후를 칭하였다. 7월 이희열의 장수 薛翼이 唐州를 들어 [조정으로] 투항하고, 侯召가 光州를 들어 투항하였다(194쪽).

라고 한다. 오소성의 번진 장악에 반대한 세력들이 조정으로 투항한 것이

31) 앞의 각주에서 본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7월 조와 함께 『신당서』 권7, 정원 2년 6월 조, 194쪽 참조.

32)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 “貞元五年, 進拜節度使”(6003쪽).

33) 앞에서 본 이희열만 해도 전임 절도사를 몰아낸 大曆 14년(779) 3월 절도유후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 5월 정식 절도사가 되었다. 이희열은 절도사 초기에 조정의 명을 받드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 이사고는 정원 8년(792) 5월 이남의 뒤를 이은 후 같은 해 8월 절도사에 임명되었다.

34) 여기서는 6월에 오소성이 진선기를 죽였다고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대로 7월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통감』 권232, 정원 2년 7월 조에 “기유일 虔王 諒을 申·光·隨·蔡節度大使에 임명하고 오소성을 留後로 삼았다”(7470쪽)라고 하고,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 7월 조에서도 “기유일 건왕 諒을 申光隨蔡節度大使에 임명하고 淮西兵馬使 오소성을 蔡州刺史·知節度留後로 삼았다”(353쪽)라고 하여 오소성이 절도유후가 되어 申·光·隨·蔡 4주를 관할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당조로 투항하였던 光州가 다시 회서 관할이 되었다.

하지만 『신당서』 권65, 方鎮表2와 吳廷燮 撰, 『唐方鎮年表』에 의하면 오소성이 申·光·蔡 3주만을 관할한 듯이 보이고³⁵⁾ 또 武强, 「唐淮西節度使 相關問題考論」이라는 논문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오소성 시기부터 회서 번진이 3주만을 관할한 것으로 보았다.³⁶⁾ 지금 그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오소성이 처음에 명목상으로도 4주를 관할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3주만을 관할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신당서』 권65, 방진표2에 의하면 오소성 이후에도 회서는 여러 차례 영역의 변화가 있으나 곧 회복되었다.

III. 吳少誠의 외부확장 기도

오소성은 절도사가 된 후 근검하며 사욕을 버리고 번진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당조에 대해 초기부터 반역적 태도를 보였다. 즉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을 보면

35) 『신당서』 권65, 方鎮表2, 淮南西道, 1811~1816쪽 및 吳廷燮 撰, 『唐方鎮年表』 3, 淮西, 中華書局, 1980, 1257~1260쪽.

36) 武强, 「唐淮西節度使相關問題考論」, 48쪽.

오소성은 [절도사에 임명되자 변진을 잘 다스리며 근검하고 사욕이 없었는데, 항상 성을 손질하며 군량을 모으며[完聚]³⁷⁾ 조정을 받들지 않았다(3946쪽).

라고 한다.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서는 “다스릴 때 검소하고 절약하며 군사 물자를 완비하였다”(6002쪽)라고 하는데, “군사 물자를 완비하였다”는 것은 앞의 “성을 손질하며 군량을 모으며”라고 하는 것과 함께 모종의 획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오소성의 행동은 앞에서 말한 평로군 집단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회서절도사가 된 이후 오소성이 취한 행동들을 보자. 앞서 진선기는 덕종의 명을 받들어 서쪽 변경을 지키는 防秋兵을 鄜州로 파견하였는데, 오소성이 절도사에 오르자 몰래 그들을 귀환시켰다. 즉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 정월 조를 보면

이전에 진선기가 회서를 들어 투항한 지 겨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조서를 내려 그 병사를 京西에 발동하여 防秋하게 하자, 진선기가 都知兵馬使 蘇浦에게 회서의 정예병 5천인을 모두 이끌고 가게 하였다. 마침 진선기가 오소성에게 살해되었고 오소성이 몰래 사람을 보내 門槍兵馬使 吳法超 등에게 병사를 이끌고 귀환하게 하였다. 소포가 알았을 때는 오법초 등이 步騎 4천을 이끌고 鄜州로부터 叛하여 귀환하였다. 渾瑊이 그 군장 白婆勒에게 추격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하고 말았다(7478쪽).

37) 完聚의 의미에 관해서는 『자치통감』 권226, 건중 2년 정월 조, “田悅亦完聚為備。[胡三省注: 杜預曰, 完聚者, 完城郭, 聚人民]”(7295쪽); 同, 241, 憲宗 元和 14년 조, “宣武節度使韓弘始入朝, 上待之甚厚。弘獻馬三千·絹五千·雜繪三萬·金銀器千, 而汴之庫廩尚有錢百餘萬緡·絹百餘萬匹·馬七千匹·糧三百萬斛。[호삼성 주: 史言韓弘善完聚]”(7769쪽)라고 하는 것도 보인다.

라고 한다. 그러자 덕종이 급히 陝虢觀察使 李泌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그들이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필이 군사를 험한 곳에 나누어 배치하여 토벌하니 살아서 회서에 이른 자는 겨우 47인이었다. 오소성은 그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 모두 죽이고 조정에 보고하였다.³⁸⁾ 이 사건에 대해 『신당서』 권139, 李泌傳에서는

정원 원년 …… 회서의 방추병이 鄜州에 주둔하였다가 4천인이 亡歸하였는데, 흑자가 말하길 오소성이 몰래 부른 것이라 하였다. [그들이] 경계로 들어오자 이필이 험한 곳에서 맞이하여 모두 擊殺하였다(4635쪽).

라고 한다. 또 이필이 포로로 잡은 張崇獻 등 60여 인을 京師로 보내자 덕종이 조서를 내려 부주의 軍門에서 모두 요참하게 하여 방추의 무리들에게 법령을 보이게 하였다.³⁹⁾ 절도사가 방추병을 파견하는 것은 조정에게 충절을 보이는 중요한 행위인데, 오소성이 회서의 방추병을 몰래 부른 것은 조정을 무시하는 반역적 행동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덕종은 오소성에게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중 회서 내부에서 오소성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이 나타났다. 즉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787) 4월 조를 보면

申蔡留後 오소성이 병기를 수선하고 城을 보수하여 조정의 명을 거역하려고 하였다. 判官 鄭常과 大將 楊冀가 그를 몰아내려고 모의하여 거짓으로 手詔를 만들어 諸將과 申州刺史 張伯元 등에게 주었지만, 일이 누설되어 오소성이 정상·양기·장백원을 죽였다. 大將 宋昱과 曹濟는 長安으로 달아났다(7485쪽).

38)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 정월 조, 7478~7479쪽에 그 과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39)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 정월 조, 7479쪽.

라고 하고, 같은 사건이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에서는

정원 3년(787) [4월] 判官 鄭常 및 大將 楊冀가 오소성을 몰아내고 조정의 명을 받들려고 모의하여 試校書郎 劉涉이 거짓으로 手詔 수십 통을 만들어 몰래 大將들에게 주고 오소성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틈 타 성문을 닫아 거부하려 하였다. 때마침 오소성이 밖으로 나가 환관에게 전송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자 정상·양기 등이 마침내 거사를 모의하여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혹자가 알리는 바람에 정상·양기가 먼저 살해되었다. 그 장수 李嘉節 등이 각각 거짓 조서를 들고 죄를 청하자 오소성이 모두 용서하였다. 그 대장 송경·조제는 경사로 달아났다.

라고 한다.⁴⁰⁾ 오소성이 반역적 태도를 노골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병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훗날 憲宗 시기에 평로 번진에서도 조정에 대한 태도를 두고 내부적으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였지만,⁴¹⁾ 그 형태는 달랐다고 해도 회서에서도 조정에 대한 태도를 두고 내부적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다.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 의하면 “정상·양기가 오소성을 위협해서 몰아내고 조정의 명을 받들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오소성이 정상·양기 등을 죽인 뒤 “군장들을 모두 용서하여 병사의 마음을 결집시켰다”(6003쪽)라고 한다. 오소성에 반기를 든 정상·양기 등은 어쩌면 평로군 집단과는 다른 성격의 세력일 가능성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알 수 없다.⁴²⁾

40)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3년 5월 조, “吳少誠殺申州刺史·殿中侍御史鄭常”(194쪽).

41) 정병준, 「李正己一家 藩鎮과 高沐 -온건파와 강경파의 내부분열과 대립」, 『역사학보』 180, 2003, 136~148쪽.

42) 앞서 회서절도사 이희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부하 장수인 周曾·康秀琳 등이 당군과 연락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적이 있다. 정병준, 「唐 德宗代

앞에서 본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787) 4월 조의 “조정 명을 거역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후 오소성이 취한 행동을 통해 유추해 보기로 하자.

잠시 회서 번진의 내부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을 보면

이희열 이래로 申·蔡 사람들은 가혹한 법에 위협받아 귀순할 생각을 잊었고 연장자가 죽어도 연소자는 폭력과 약탈에 익숙하고 싸움을 편안하게 여기게 되었다(6002~6003쪽).

라고 하여 이희열 시기부터 회서가 가혹한 법제로 통제되어 조정과 유리된 상황에서 매우 전투적인 번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서의 군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즉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

토지에 말이 적어⁴³⁾ 노새를 타고 전투를 하였는데, 騾子軍이라 칭하였으며 매우 사납고 날카로웠다. 갑옷에는 모두 천둥[雷公]·별자리[星文]를 그려서 厭勝(즉 주술로 굴복시킴)으로 삼아 황제의 군대를 저주하며 욕하였다(6003쪽).

라고 하여 토양적으로 말이 적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새를 탄 ‘나자군’을 양성하여 위력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또 『자치통감』 권232, 정원 3년 정월 조에 의하면 “정예병은 모두 노새를 탔는데, 이를 騾軍이라 불렀다”(7478쪽)라고 한다.

淮西節度使 李希烈的 稱帝와 그 성격], 81쪽 참조.

43) 『南部新書』 卷庚, “胡澗者, 吳少誠之卒也, 爲辯州刺史, 好擊毬. 南方馬庫小, 不善馳, 澗召將吏蹴鞠, 且患馬之不便玩習, 因命夷民十餘輩肩舁, 據輦擔杖, 肩者且繫, 旋環如風. ……”(中華書局, 111쪽); 『태평광기』 권269, 酷暴3, 胡澗 조, 2112쪽.

오소성은 절도유후에 임명된 직후부터 반역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인 정원 5년(789) 덕종이 그를 정식 절도사에 임명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결국 덕종이 오소성을 정식 절도사에 임명한 것은 4왕의 난 이후 할거 번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려고 한姑息의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시기에 덕종은 할거 번진 등에게 관작을 높이는 방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데,⁴⁴⁾ 결국 이러한 정책에 따라 오소성을 정식 절도사에 임명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⁵⁾

하지만 오소성의 반역적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즉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793) 11월 조를 보면 “[전 해 3월 宣武節度使 劉玄佐가 죽고 같은 해 4월 그 아들 劉士寧이 선무절도사가 되었으나⁴⁶⁾ [이때에 이르러서도] 諸將이 대부분 복종하지 않았다”(7549쪽)라고 한 뒤 同, 12월 조에서

을묘일 유사녕이 무리 2만을 거느리고 外野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都知兵馬使] [李]萬榮이 새벽에 使府로 들어가 남아있던 親兵 1천여 인을 불러 속여 말하길 “칙서가 내려와 大夫를 불러 입조시키고 나에게 유후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라고 하자 무리가 모두 절을 하였다. 또 外營의 병사에게 말하니 모두가 명에 따랐다. …… 유사녕은 무리를 부릴 수 없음을 알고 5백 기를 이끌고

44) 정병준, 「四王之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501~504쪽, 515쪽, 518~519쪽.

45) 孟彥弘, 「姑息」與「用兵」-朝廷藩鎮政策的確立及其實施, 『唐史論叢』 12, 2010에 의하면 정원 연간에 할거 번진에서 藩帥가 사망하면 덕종은 고식정책을 취해 일률적으로 그들의 자율적 계승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4왕의 난 이후 덕종이 부득이하게 河朔故事를 직시하게 된 때문이라고 한다(126~127쪽, 138쪽).

46)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3월 및 4월 조, 7526쪽, 7528쪽. 자세한 것은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劉玄佐傳 譯註, 『역사와교육』 16, 2013, 291쪽 참조.

京師로 돌아났는데, 京都에 이르렀을 때 남은 자는 僕妾뿐이었다. …… 회서절도사 오소성이 변고를 듣고 병사를 내어 鄆城에 주둔시키고 사신을 보내 [유사녕을 몰아낸] 연유를 묻고 싸우길 청하였다. 이만영이 말로 이를 희롱하자 오소성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7549~7550쪽).

라고 한다. 즉 선무 번진의 도지병마사 李萬榮이 절도사 유사녕을 몰아낸 틈을 이용하여 오소성이 채주 屬縣인 鄆城⁴⁷⁾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이만영의 태도를 시험해 보았으나 이만영이 두려워하지 않고 응수하는 것을 보고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오소성이 군대를 동원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선무에 허점이 보이면 그 영토를 침범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기실 선무의 치소인 汴州는 이전에 회서 관하에 속했고 또 이희열 시대에는 그곳을 점령하여 황제를 칭하기도 했던 곳이다. 말하자면 오소성은 기회가 오는 대로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원 13년(767) 10월에는 오소성이 멋대로 淘刁河·汝河를 개착하자 덕종이 조서를 내려 그만두게 하였으나 받들지 않았다고 한다.⁴⁸⁾ 아마도 두 하천은 주변 번진으로도 이어진 것이지만, 오소성이 물 자원을 독점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자치통감』 권235, 정원 13년 10월 조에 의하면

회서절도사 오소성이 멋대로 刀溝를 개착하여 [호삼성 주; 刀溝는 신당서·구당서에 모두 司洧水라고 적혀 있다] 汝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황제가 환관을 보내 그만두게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兵部郎中 盧羣을 보내 힐문하게 하니 오소성이 말하길 “이 水를 개착하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다”

47) 해당 구절의 호삼성 주에 “隋開皇初置鄆城縣，屬汴州，時屬蔡州”라고 한다.

48)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3년 10월 조, 386쪽.

라고 하였다. 노군이 말하길 “군주가 명하면 신하는 따르는 것이다, 비록 이익이 있다고 해도 人臣이 감히 멋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이 天子의 명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어찌 下吏에게 공의 명을 따르게 하겠는가”라고 하자 오소성이 급히 筏을 그만두었다(7578쪽).

라고 하여 결국에는 오소성이 덕종의 명에 따랐다고 한다.⁴⁹⁾ 이로 보면 오소성은 무조건 반역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름 형세를 보면서 행동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 까닭인지 이듬해인 정원 14년(798) 2월에는 덕종이 회서에 대해 彰義라는 軍號를 하사하여⁵⁰⁾ 오소성을 회유하려 한 것이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소성의 기본 태도는 바뀌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공격적 면모를 보였다. 즉 『자치통감』 권235, 정원 14년(798) 9월 조를 보면

창의절도사 오소성이 병사를 보내 壽州 霍山을 약탈하고 鎭邊使 謝詳을 살해한 뒤 50여 리의 땅을 침략하여 병사를 두어 鎭守하였다(7581쪽).

라고 하여 인접한 淮南節度使 관하의 수주⁵¹⁾ 광산현을 공격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다고 한다. 또 同, 정원 15년(799) 3월 조를 보면

49) 『구당서』 권140, 盧羣傳, “淮西節度使吳少誠擅開決司·洧等水漕輓溉田, 遣中使止之, 少誠不奉詔. 令羣使蔡州詰之, …(상세)… 少誠大感悅”(3834쪽); 『책부원구』 권660, 奉使部, 盧羣 조, 中華書局, 7900쪽.

50) 『자치통감』 권235, 정원 14년 2월 조, “名申光蔡軍曰彰義. [호삼성 주: 吳少誠時據淮西, 有申·光·蔡三州](7580쪽); 『신당서』 권65, 方鎭表2, 淮南西道, 정원 14년 조, “申光蔡節度賜號彰義軍節度”(1812쪽).

51) 『신당서』 권68, 방진표5, 淮南, 정원 4년 조, “淮南節度復領廬·壽二州”(1910쪽).

오소성이 병사를 보내 唐州를 습격하여 監軍 邵國朝와 鎮遏使 張嘉瑜를 살해하고 百姓 1천여 인을 약탈하여 돌아갔다(7583쪽).

라고 하여 인접한 山南東道 관하의 唐州⁵²⁾를 습격하여 감군 등을 죽이고 백성들을 약탈하였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주는 원래 회서의 관할이었으나 오소성이 절도유후를 칭하였을 때 산남동도로 넘어간 곳이다. 이 역시 오소성이 이전의 영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 행위가 매우 공격적이다. 평로의 이남 등 다른 할거 번진은 그들에 대한 덕종의 태도와 비슷하게 조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려 하지 않았지만,⁵³⁾ 오소성은 공공연히 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오소성이 당주를 함락시킨 행동에 대해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3월 조에서는 “彰義軍節度使 오소성이 反하여 唐州를 함락시켰고 守將 張嘉瑜가 죽었다”(202쪽)라고 하여 ‘反’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오소성의 행동은 이미 중대한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도 덕종은 오소성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계속 고식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다가 같은 해인 정원 15년(799) 8월 陳許節度使·許州刺史 曲環이 죽자⁵⁴⁾ 오소성이 군대를 보내 그 영역을 침공하였다. 즉 『구당서』 권145,

52) 『신당서』 권67, 방진표4, 南陽, 至德 2載(757) 조, “廢南陽節度使, 升襄陽防禦使爲山南東道節度使, 領襄·鄧·隋·唐·安·均·房·金·商九州, 治襄州”(1870쪽).

53)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515쪽. 또 C. A. Peterson, “Court and province in mid-and late T'ang,” p.510(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譯, 『劍橋中國隋唐史(589-906)』, 509쪽)에서는 4왕의 난 이후 대부분의 번진이 황제에게 직접 도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반을 통제하는 데 만족하였다고 한다.

54)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5년 8월 조, 391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8월 조, 7583쪽.

오소성전을 보면

[정원] 15년 진허절도사 곡환이 추하자 오소성이 멋대로 군대를 내어 [許州 臨穎縣을 약탈하였다. 그 절도유후 上官浣가 병사를 보내 구원하였으나 臨穎鎮使 韋淸이 오소성과 내통하면서 구원병 3천여 인이 모두 사로잡혀 끌려갔다. 9월 마침내 許州를 포위하였다(3946쪽).

라고 하고,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을 보면 “오소성은 진허에 번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군대를 내어 임영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戍將 韋淸이 賊과 내통하였고 유후 상관세가 병사 3천을 보내 구원하였으나 모두 적의 포로가 되었다. 마침내 許州를 포위하였다”(6003쪽)라고 한다. 그때 상관세의 명으로 3천을 이끌었던 장수는 진허 번진의 大將 王令忠이었고 9월 상관세는 오소성이 허주를 포위하기 직전 정식 절도사에 임명되었다.⁵⁵⁾ 허주 역시 이전에 회서의 영토였는데,⁵⁶⁾ 이 또한 오소성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이전 영역의 회복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⁵⁷⁾

이러한 오소성의 행동에 대해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5년 8월 조에서는 “오소성의 謀逆이 점점 심해져 임영을 함락시켰다”(391쪽)라

55)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8월 조, “陳許節度使曲環薨. 乙未(24일), 吳少誠遣兵掠臨穎, [臨穎, 漢古縣, 唐屬許州] 陳州刺史上官浣知陳許留後, 遣大將王令忠將兵三千救之, 皆爲少誠所虜. 丙午(9월 5일), 以浣爲陳許節度使, 少誠遂圍許州. 浣欲棄城走, 營田副使劉昌裔止之曰, ……”(7583~7584쪽). 한편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9월 조에서는 “乙巳(4일), 陳許節度留後上官浣及吳少誠戰于臨穎, 敗績. 丙午(5일), 少誠寇許州”(202쪽)라고 한다.

56) 武強, 「唐淮西節度使相關問題考論」, 48쪽.

57) 물론 이전의 영역이 거의 현재 회서의 주변이라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이전 영역에 있었던 것은 平盧의 李師古와 成德의 王武俊에게도 보인다. 즉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師古와 周邊 藩鎮의 관계」, 『중국사연구』 129, 2020(근간) 참조.

고 하여 그 반역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고 하고, 또 『신당서』 권143, 王翊傳에서는

東都留守로 옮겼는데, 부임한 후 田 20여 屯을 개간하고 器械를 수선하면서 모두 좋은 금속(良金)과 질긴 가죽(壽革)으로 하였고, 사졸을 훈련시켜 號令이 精明하게 하였다. 순식간에 오소성이 叛하였는데, 오직 東畿만이 그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關東이 이에 의지하였다(4692쪽).

라고 하여 오소성이 叛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왕굉이 동도유수에 임명된 것은 정원 12년 7월이고,⁵⁸⁾ 이때의 ‘叛’은 정원 15년 8월의 일로 짐작된다. 이렇게 史書에 反 혹은 叛이라고 기술할 정도라면 덕종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신당서』 권106, 趙矜傳을 보면 “曾孫인 矜은 明經에 합격[擧]하여 [허주] 舞陽[縣⁵⁹⁾]의 主簿에 임명되었다가 오소성이 反하자 현을 들어 귀순하였다. [汝州] 襄城[縣⁶⁰⁾]의 주부로 옮기고 牙緋를 하사받았다”(4043쪽)라고 하는데, 이때 오소성의 反이라는 것도 허주를 침공한 것을 말한다고 보인다. 그러자 조공이 그 속현인 무양현을 들어 조정에 투항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叛과 反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反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⁶¹⁾

58)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2년 7월 조에 “以太子賓客王翊爲東都留守·判東都尚書省事·東畿汝都防禦使. 是日, 汴州節度使李萬榮卒”(384쪽); 同, 정원 18년 6월 조, “以吏部尚書顧少連爲兵部尚書·東都留守·東都畿汝防禦使. 前東都留守·檢校禮部尚書王翊卒”(396쪽).

59) 『신당서』 권38, 지리지2, 河南道, 許州·潁川郡 조, 988쪽.

60) 『신당서』 권38, 지리지2, 河南道, 汝州·臨汝郡 조, 984쪽.

61) 叛과 反의 용례 비교에 관해서는 정병준, 『『구당서』·『신당서』 등에 보이는 ‘反’ 용례 비교 검토 - 신라사의 반란 용례와도 관련하여, 『중국고중세사연구』 46, 2017, 322쪽 등 참조.

IV. 吳少誠과 德宗의 군사충돌

앞에서 오소성이 여러 가지 반역적 행동을 한 것을 보았지만, 덕종은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덕종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원 13년(767) 10월 오소성이 洶刁河·汝河를 개착하자 덕종이 이를 그만 두게 하여 마침내 중지시킨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실 그 사이에 또 한 가지 대응이 있었는데, 즉 정원 3년(787) 윤5월 荊南節度使 李臯를 회서와 인접한 山南東道節度使에 임명하여 오소성을 견제한 것이다. 『신당서』 권80, 太宗諸子, 嗣曹王李臯傳에 의하면

정원 초에 오소성이 蔡(즉 회서)를 멋대로 점거하자 이고를 산남동도로 옮겨 다스리게 하고 隋·汝를 할양하여 군대를 증강하게 하니 병사를 훈련시키며 식량을 저장하고 回鶻馬를 구입하여 戰騎를 증강하고 계절마다[歲時] 크게 사냥을 하여 병사를 교련시켰으므로 오소성이 두려워하였다(3582쪽).

라고 한다.⁶²⁾ 하지만 이 역시 적극적 대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정원 8년(792) 2월 이고가 그 직위에서 죽은 후에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⁶³⁾

덕종은 오소성에게도 고식정책을 펼쳐 그 동안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정원 15년(799) 8월 오소성이 反하여 진허를 침공하자 덕종도 더 이

62) 『구당서』 권131, 李臯傳, “初平希烈, 吳少誠殺陳仙奇, 上以襄·鄧要阨, [貞元]三年[閏五月], 除襄州刺史·山南東道節度等使, 割汝·隨隸焉. 練兵積糧, 市迴鶻馬益騎兵, 嘗大畋以教士, [吳]少誠憚之”(3640쪽). 여기서 윤5월이라는 것은 同書 권12, 德宗 본기, 정원 3년 윤5월 조, 357쪽에 의거하였다.

63) 吳廷燮 撰, 『唐方鎮年表』 1, 山南東道, 628쪽.

상 목과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을 보면 덕종이 정면으로 대응하여

덕종이 怒하여 오소성의 관작을 삭탈하고 16道 병사를 합쳐 나아가 토벌하게 하였다(6003쪽).

라고 하고,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에도 “9월 곧이어 조서를 내려 오소성의 관작을 삭탈하고 16道(즉 번진)의 병마를 分遣하여 토벌하게 하였다”(3946쪽)라고 한다. 『자치통감』 등에 의하면 덕종이 16개 번진에게 군사를 내어 토벌하게 한 시점은 오소성이 허주를 포위한 달인 정원 15년 9월 병진일(15일)이다.⁶⁴⁾

그때 덕종이 토벌을 명한 번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보자. 즉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799) 9월 조에 의하면

병진일(15일)에 宣武, 河陽, 鄭滑, 東都汝, 成德, 幽州, 淄青, 魏博, 易定, 澤潞, 河東, 淮南, 徐泗, 山南東·西, 鄂岳 번진에게 오소성을 토벌하게 하였다”(202쪽).

라고 하여 16개 번진 명칭이 보인다.⁶⁵⁾ 하지만 『신당서』 권141, 韓全義傳

6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9월 조, “丙辰(15일), 詔削奪吳少誠官爵, 令諸道進兵討之”(7584쪽);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5년 9월 조, “丙辰(15일), 制, ‘吳少誠非次擢用, 授以旌節, …… 隋州茶園, 輒縱凌奪, 唐州詔使, 潛搆殺傷. 干犯國章, 罪在無赦. …… 乃至攻逼許州, …… 宜令諸道各出師徒, 犄角齊進. 吳少誠在身官爵, 並宜削奪’. ……”(391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9월 조, 202쪽.

65) 『唐大詔令集』 권119, 「討吳少誠詔」, “宜令宣武軍·河陽三城·鄭滑等州節度使·東都汝州等軍, 犄角相應, 同逼申光蔡州. 恆冀·幽州·淄青·魏博·易定·澤潞·太原·淮南等州, 徐泗·山南東道·鄂岳等軍, 各發士馬, 逐便犄角齊進, 同爲討伐”(商務印書

과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2월 조에서는 ‘17개’ 번진이 동원되었다고 하여⁶⁶⁾ 그 숫자에 차이가 있다. 이들 기록만으로는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뒤에 오소성을 토벌하는 당군 안에 河中의 명칭이 보이는 점을 함께 참조하면⁶⁷⁾ ‘17개’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덕종이 토벌을 명한 번진 군대 안에 成德·幽州·魏博·淄靑이 보인다는 점이다. 네 번진은 이전에 회서와 연대하여 당조에 대항하기도 하였는데,⁶⁸⁾ 이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오소성 토벌에 나섰을지는 의문이다. 정원 초기에 淄靑(平盧)節度使 李納이 이희열의 반란을 토벌하는 데 참여하여 그 영토를 노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⁶⁹⁾ 치정(평로)의 李師古 등은 오소성에 의한 혼란을 틈 타 언제든지 세력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점은 번진들에 대한 당시 덕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오소성이 허주를 공격하기 전에 宣武節度使 劉全諫과 연대하여 진허의 영토를 차지한 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즉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799) 9월 조를 보면

신유일(20일) 韓弘을 선무절도사로 삼았다. 이에 앞서 오소성은 유전량과 함께 陳許를 공격하여 陳州를 선무에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오소성의] 使者가 몇 명이 아직 속소(館)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홍이 모두 끌어내어 참살하고 병졸 3천을 선발하여 諸軍과 함께 오소성을 허주 아래에서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오소성이 세력을 잃었다(7584쪽).

館, 628~629쪽). 여기서는 山南西道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66) 『신당서』 권141, 韓全義傳, “吳少誠以蔡拒命, 詔合十七鎮兵討之. 時軍無帥統, ……” (4659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2월 조, “十七道兵皆受[韓]全義節度”(7586쪽).

67) IV장에서 정원 16년(800) 9월의 사건들을 서술하는 부분 참조.

68) 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17~34쪽.

69)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514쪽.

라고 한다. 오소성의反은 强藩인 선무와의 밀약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反한 것은 선무 외에도 치청 등의 할거 번진이 상황에 따라 반란에 동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구당서』 권124, 이사고전에 의하면 “이사고는 비록 겉으로는 조정의 명령을 받들었으나 속으로는 항상 침략의 마음을 품고 망명자들을 불러 모아 모두 후하게 대우하였으며, 특히 조정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 온 자는 바로 기용하였다”(3537쪽)라고 하고, 成德 등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⁷⁰⁾ 앞서 稱帝하였던 이희열도 다른 할거 번진이 반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실패하였지만,⁷¹⁾ 오소성은 유전량과의 밀약을 맺으면서 더욱 확신을 가졌을 수 있다. 하지만 유전량을 이은 한홍⁷²⁾은 오히려 덕종의 명에 따라 다른 번진들과 함께 오소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유전량의 죽음이 오소성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던 것이다. 한홍의 공격으로 “오소성이 세력을 잃었다”는 것은 그에 따른 타격이 매우 컸음을 알게 한다. 부언하면 점령 후 유전량에게 넘기기로 한 陳州도 이전에 회서의 영역이었는데, 이를 양도하기로 한 것은 자신이 진히 번진의 치소인 허주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당군은 오소성에 대한 공세로 나서 같은 해 10월 산남동도절도사 于頔과 安黃節度使 伊慎, 知壽州事 王宗이 상관세·한홍과 함께 오소성을 공격하여 누차 격파하였다. 또 11월 임자일(12일)에는 우적이 채주 관하의 吳房縣과 朗山縣⁷³⁾을 함락시켰는데,⁷⁴⁾ 낭산현에서는 회서 병사 3천을 격

70)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師古와 周邊 藩鎮의 관계」(근간).

71)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성격」, 93~94쪽, 96쪽.

7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9월 조, “庚戌(9일), 宣武軍節度使 劉全諒卒, 都知兵馬使 韓弘自稱留後. 丙辰(15일), 宣武·河陽……山南東西·鄂岳軍討 吳少誠”(202쪽).

73) 『신당서』 권38, 지리지2, 하남도, 蔡州·汝南郡 조, 988~989쪽.

7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10월 및 11월 조, 7584쪽; 『신당서』 권214, 오소성

파하였다고 한다.⁷⁵⁾ 또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11월 조에 의하면 낭산현을 점령하기 전의 상황으로

정미일(7일), 산남동도절도사 우적이 오소성과 吳房에서 싸워 패배시켰다. 진허절도사 상관세가 또 柴籬에서 패배시켰다. 신해일(11일) 안황절도사 이신이 또 鍾山에서 패배시켰다(202쪽).

라고 한다. 이때 柴籬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鍾山은 申州의 속현이다.⁷⁶⁾ 그렇다면 당군은 여러 방면으로 회서를 공격한 것이 된다. 또 12월에는 왕종이 秋柵⁷⁷⁾에서 오소성 군대를 패배시켰다고 한다.⁷⁸⁾

하지만 唐軍의 승세는 거기서 멈추었다. 즉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5년(799) 12월 조를 보면

회서의 賊과 小澗河에서 싸워 王師가 불리하여 諸軍이 스스로 潰산하였다(392쪽).

라고 하고,⁷⁹⁾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12월 조에서는 당군이 패배한

진, “于頔以襄陽兵戰吳房·朗山, 禽其三將”(6003쪽).

75)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5년 11월 조, “襄州于頔奏, 于朗山破淮西賊三千人”(391쪽).

76) 『元和郡縣圖志』 권9, 河南道5, 申州 조, 中華書局, 244쪽.

77) 秋柵은 수주 경내의 지명으로 보인다. 즉 『구당서』 권140, 張建封傳, “[李希烈]尋稱僞號, 改元, …… 又僞署其黨杜少誠爲淮南節度使, 令先平壽州, 趣江都, 建封令其將賀蘭元均·邵怡等守霍丘·秋柵. 少誠竟不能侵軼, 乃南掠蘄·黃等州, 又爲伊慎所挫衄”(3829~3830쪽)라고 하는데, 霍丘는 수주의 속현이다(『구당서』 권40, 지리지3, 淮南道, 壽州 조, 1577쪽) 참조.

78)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12월 조, 202쪽.

79)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十二月, 官軍敗衄於小澗河”(3946쪽).

원인 등을 서술하여

諸軍이 오소성을 토벌하는데 統帥가 없었기 때문에 출병할 때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를 살폈으므로 進退가 일정하지 않았다. 을미일 諸軍이 스스로 小澗에서 궤산하여 器械·資糧을 버리니 모두 오소성의 소유가 되었다. 이에 비로소 招討使 설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7585쪽).

라고 한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던 소은수(또는 소은하)는 채주 汝陽縣을 흐르는 하천이다.⁸⁰⁾ 당군이 오소성의 본거지에서 대패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당군을 총괄할 초토사의 설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패배가 당조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시 당군이 오소성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 즉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정월 조를 보면 “恆冀(成德)·易定·陳許·河陽 4軍이 오소성과 싸웠으나 모두 불리하여 후퇴하였다”(7586쪽)라고 한다.

다음 해인 정원 16년(800) 2월 鹽夏綏銀節度使 韓全義가 蔡州行營招討處置使에 기용되고 상관세가 그 부사에 임명되었다.⁸¹⁾ 하지만 한전익은 본래 용기와 지략이 없었고 오로지 교묘한 아첨과 뇌물로 환관과 결탁하여 고위 장수가 된 인물이다. 그리하여 매번 군대의 일을 논의할 때마다 환관

80)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12월 조의 호삼성 주, “水經註, 潁水東南過臨潁縣, 小澗水注之, 又東過西華縣北, 又南過汝陽縣北, 又東南過南頓縣北, 大澗水從西來注之. 宋白曰, 蔡州汝陽縣, 隋開皇十七年改爲澗水, 今界內水有大澗·小澗之名. 其年又於上蔡縣東北別置汝陽縣”(7585쪽).

81)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6년 2월 조, 202쪽;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6년 2월 조, “以左神策行營·銀夏節度等使韓全義爲蔡州行營招討使, 陳許節度使上官浣副之”(392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2월 조, “以全義爲蔡州四面行營招討使”(7586쪽). 그리고 그에 따라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에 의하면 “北路行營諸軍將士並取[韓]全義指揮”(3946쪽)라고 한다.

으로 군대를 감시하는 監軍 수십 인과 군막에 앉아 논쟁을 벌였으므로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낼 수 없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는데, 士卒은 오랫동안 진창이 된 땅에 주둔하여 많은 이가 질병에 걸렸으므로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⁸²⁾

같은 해(800) 5월 드디어 한전이가 오소성 군대와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즉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을 보면

오소성의 장수 吳秀·吳少陽 등과 澗水 남쪽에서 싸웠는데, 관군이 또 패하였다(3946쪽).

라고 하고,⁸³⁾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5월 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한전이가] 오소성의 장수 오수·오소양 등과 澗[水] 남쪽의 廣利原에서 싸웠는데, 鋒鏑이 막 교차되자 諸軍이 大潰하였다. 오수 등이 승세를 타자 한전이가 후퇴하여 五樓를 지켰다”(7588쪽)라고 한다. 여기서 澗水는 진희의 영역인 陳州의 속현을 가리키고,⁸⁴⁾ 五樓는 澗水縣 서남에 있는 지명이다.⁸⁵⁾ 말하자면 오소성의 군대가 진희 관하의 陳州에까지 진격하여 한전이의 군대를 대파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산남동도절도사 우적이 반역적 태도를 보였다. 즉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800) 5월 조를 보면

산남동도절도사 우적이 오소성을 토벌하는 틈을 이용하여 戰士를 대거 모

82)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4월 조, 7587~7588쪽.

83)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6년(800) 5월 조, “庚戌, 韓全義與蔡賊將吳少誠戰於澗水南, 王師敗績”(392쪽).

84) 『구당서』 권38, 지리지1, 하남도, 陳州 조, 1437쪽.

85)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4월 조의 호삼성 주, 7588쪽.

집하고 갑옷을 수리하며 병기를 날카롭게 하고 재화를 끌어 모으면서 멋대로 誅殺을 행하고 漢南을 점거할 뜻을 품고서 오로지 위로 오만하고 아래로 능멸하는 행동을 하였다. 황제는 바야흐로 藩鎮에게 姑息하려 하여 그 행위를 알면 서도 어찌할지를 몰랐다. ……(7588쪽).

라고 한다. 이러한 우적의 행동은 당군의 패배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번진체제의 취약성을 잘 엿보게 한다. 말하자면 당조와 번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번진이 언제든지 반역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⁸⁶⁾ 여기서 漢南(즉 漢水 남쪽)에는 회서가 포함되므로 우적이 노린 것은 어찌면 오소성의 영토일 수 있다.⁸⁷⁾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덕종은 고식의 태도를 취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덕종의 고식정책은 할거 번진의 범위를 넘어섰던 것이다.

같은 해(800) 7월 오소성이 승세를 타고 오류의 당군을 공격하여 대패시키니 한전익의 都監軍使 賈秀英과 賈國良 등과 함께 밤중에 달아나 은수현에 성을 쌓고 지켰다.⁸⁸⁾ 그러자 汴宋·徐泗·淄靑의 군대도 곧장 陳州로

86) 王賽武, 「당대 정치사에서 양자강 증류의 역할」, 위진수당사학회 역, 『唐代史의 조명』, 285~287쪽에 의하면 우적은 사병 조직에 의존한 무식한 군인이 아니라 한유 등 많은 문장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귀족 출신이며 그의 아들은 憲宗의 공주와 결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행동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오소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이 반역적 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부연하면 헌종 초에 劍南西川에서 반란을 일으킨 劉闢은 進士 출신이다(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憲宗과 藩鎮」, 『唐代史의 조명』, 208~210쪽).

87) 『구당서』 권133, 李憲傳에 “于頓鎮襄陽, 辟爲從事. 時吳少誠據淮西, 獨憚頓之威, 當時咸以憲謀剽致之”(3685쪽)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일 수도 있다.

88)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七月, [韓]全義頓軍於五樓行營, 爲賊所乘, 大潰, 全義與都監軍使賈秀英·賈國良等夜遁, 遂城守澗水”(3946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6년 7월 조, “丙寅, 韓全義及吳少誠戰於五樓, 敗績”(203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7월 조, “吳少誠進擊韓全義於五樓, 諸軍復大敗, 全義夜遁, 保澗水縣城”(7590~7591쪽).

달이나 四面에 군영을 세웠다.⁸⁹⁾ 당군이 밀려 진허를 지켜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9월 오소성의 군대가 나아가 은수현 5~6리 밖에 군영을 세우자 한전의 諸軍은 다시 물러나 陳州를 지켰지만,⁹⁰⁾ 宣武·澤潞·鄭滑·河陽·河中 병사가 각각 도주하여 자신의 번진으로 돌아가고 오직 진허의 장수 孟元陽과 神策將 蘇光榮만이 은수현에 성벽을 쌓고 주둔하였기 때문에 당군이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⁹¹⁾ 이 정도면 당군이 거의 완패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자 한전이는 택로(昭儀)의 장수 夏侯仲宣, 정활(義成)의 장수 時昂, 하양의 장수 權文度, 하중의 장수 郭湘 등을 거짓으로 유인하여 참수하고 이로써 군대를 떨치게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⁹²⁾ 이후에도 당군은 여러 차례 패배하였다고 보이지만,⁹³⁾ 9월 맹원양 등이 오소성 군대와 싸워 2천여 인을 죽이는 성과를 올렸다.⁹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오소성은 더 이상 당군을 공격하지 않고 정원 16년(800) 10월 채주로 돌아갔는데,⁹⁵⁾ 그 전에 오소성이 먼저 당조와 협상을

89)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 “汴宋·徐泗·淄青兵走陳州”(6003쪽);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汴宋·徐泗·淄青兵馬直趨陳州, 列營四面”(394쪽).

90)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少誠兵逼澗水五·六里下營, 韓全義諸軍又退保陳州”(3947쪽);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6년 9월 조, “有吳少誠, …… 癸酉, 吳少誠賊迫官軍澗水皆下營, 韓全義退保陳州, 諸軍散還本道, 官軍不振”(393쪽). 여기서 9월에 덕종이 오소성을 용서하였다는 것이 보이지만,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91)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6년 9월 조, “癸酉, …… 韓全義退保陳州, 諸軍散還本道, 官軍不振”(393쪽);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其汴州·河陽等兵各私歸本道, ……”(3947쪽);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 “而潞·滑·河陽·河中兵逃歸, 喻陳許將孟元陽·神策將蘇光榮壁澗水”(6003쪽).

92)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 6003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9월 조, 7591쪽;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全義斬昭義·滑州·河陽·河中將凡四人”(3947쪽).

93)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然竟未嘗整陣交鋒, 而王師累挫潰”(3947쪽).

9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9월 기미일(24일) 조, 7592쪽.

시도하였다. 즉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에 의하면

[채주로 돌아가기에 앞서]⁹⁶⁾ 오소성은 황제의 군대를 약하게 보고 서신을 [賈]英秀에게 보내 죄를 씻길 구하였다. 황제가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자 재상 賈耽이 말하길 “五樓에서 군대가 퇴각하였을 때 오소성은 군사를 거두어 추격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회개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황제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으나 오소성은 또 소굴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전처럼 환관에게 諳道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6003~6004쪽).

라고 한다. 다만 이때는 협상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당조가 타협에 나서 같은 달(800년 10월) 마침내 오소성의 죄를 용서하고 관작을 회복시키게 된다. 앞의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을 계속 보면

劍南의 韋皋가 上言하여 重臣을 뽑아 統帥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渾瑊·賈耽을 천거하며 “폐하께서 만약 원로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어려워 그 다음 방법을 찾으신다면 신이 정에 병사 1만 인을 이끌고 물길을 따라 荊楚로 달려가서 가히 원흉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의 請罪를 받아들여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兩河 諸軍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또한 그 다음 방법이다. 설령 오소성의 죄악이 넘쳐서 군 내부에서 변고가 일어난다면 거사한 자는 반드시 그 賊黨이며 또 마땅히 관작을 수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의 오소성이 죽고 다른 오소성이 나타난 셈인데, 또한 가히 의지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정원 16년 10월] 마침내 조서를 내려 죄를 용서하며 그 관작을 회복시

95)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3947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 7592쪽.

96)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 “吳少誠引兵還蔡州。先是，韋臯聞諸軍討少誠無功，上言……賈耽言於上曰，……”(7592쪽).

키고 檢校僕射로 승진시켰다(6004쪽).

라고 한다.⁹⁷⁾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에서는 오소성을 사면하기 전에 가탐과 위고가 덕종에게 의견을 올린 순서가 바뀌어 서술되어 있지만, 어느 쪽이건 물밑에서 밀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달 오소성은 관작이 회복되면서 檢校僕射로 승진하였다. 오소성의 주도로 전쟁이 종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통감』 권238, 憲宗 元和 4년(809) 7월 조를 보면

당시 오소성의 병이 위증해지자 [李絳 등이 다시 上言하여 말하길 “오소성은 병들어 필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淮西의 상황은 河北과 같지 않아⁹⁸⁾ 사방이 모두 國家의 주현이며 賊과 인접하고 있지 않아 무리들이 서로 구하고 도울 수 없다. ……”]라고 하였다(7664쪽).

라고 하여 헌종 시기 조정에서 회서가 다른 할거 번진에 비해 상대하기 쉽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인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소성에 의해 전쟁이 종결된 것은 당시 당조와 할거 번진의 관계에서 번진이 상당한 주도권을 지녔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정원 16년(800) 10월 오소성이 갑자기 군대를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97)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정원 16년 10월 조, “吳少誠引兵歸蔡州, 上表待罪. 戊子詔雪吳少誠, 復其官爵”(393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 “戊子, 詔赦少誠及彰義將士, 復其官爵”(7592쪽).

98) 아래 『구당서』 오소양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재상 李吉甫의 발언과 같은 인식이다.

99)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9월 조, “李吉甫言於上曰, ‘淮西非如河北, 四無黨援, 國家常宿數十萬兵以備之, 勞費不可支也. 失今不取, 後難圖矣’”(7706쪽)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호삼성에 의하면 맹원양이 그 예봉을 꺾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⁰⁾ 하지만 그때 회서군이 입은 손상은 2천여 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서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시는 어떤 면에서 오소성이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소성이 군대를 돌린 것은 더 이상 싸움을 해도 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다른 번진이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선무가 당 측으로 돌아서고 한전의가 통제력을 상실한 혼란 속에서 다른 번진이 자신의 영토를 탈취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덕종의 오소성 토벌 실패는 할거 번진에 대한 조정의 실력을 엿보게 한다. 즉 해당 시기 조정과 할거번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조정이 아직 할거 번진을 제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대규모 군대 동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명백하게 덕종이 패한 것이다. 적어도 오소성은 손해가 없었지만, 덕종은 체면을 크게 손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권145, 劉濟傳을 보면

정원 연간에 朝廷이 藩鎮을 관대하게 용납하는 것[優容]이 더욱 심하였기 때문에 兩河에서 멋대로 스스로 [번진을] 계승한 자가 더욱 교만[驕蹇]하고 法을 받들지 않았다. 단지 유제만이 힘써 恭順하여 朝獻이 끊이지 않았고 덕종도 恩禮로 대하였다(3900쪽).

라고 한다. 여기서 優容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식과 같은 의미인데, 이 정도라면 정원 연간에 할거 번진들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시 할거 번진의 위세가 조정보다 우위에 있던 것은 아닐까.

100)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 7592쪽.

그 후 오소성과 덕종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고 정원 21년(805) 3월에 順宗이 오소성에게 同中書門下平章事를 더해주었다.¹⁰¹⁾ 이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당조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헌종 원화 연간 초에 평장사로서 검교사공으로 승진한 뒤¹⁰²⁾ 원화 4년(809) 11월 60세의 나이로 죽었다.¹⁰³⁾

V. 맺음말

오소성은 幽州 출신으로 먼저 魏博 번진의 都虞候였던 부친의 훈공으로 王府의 戶曹(정7품상)가 되었다. 그 후 건중 원년(780) 3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荊南節度使 庾準에게 牙門將으로 발탁되었다가 山南東道節度使 梁崇義가 반역의 태도를 보이자 그를 평정할 계책을 가지고 건중 2년 6월 회서절도사 이희열을 만나면서 회서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이희열이 반란을 이어가던 시기에 번진 내에서의 지위를 높여나갔다. 당시 회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이른바 ‘평로군 집단’이었는데, 그는

101) 『신당서』 권214, 오소성전, “順宗即位, 進同中書門下平章事·檢校司空, 徙封濮陽郡王”(6004쪽); 『구당서』 권14, 順宗本紀, 정원 21년 3월 조, “以韋臯兼檢校太尉, 李師古·劉濟兼檢校司空, 張茂昭司徒. …… 蔡州吳少誠兼同平章事”(406쪽); 『자치통감』 권236, 정원 21년 3월 조, “加彰義節度使吳少誠同平章事”(7612쪽).

102)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3947쪽.

103) 『구당서』 권14, 원화 4년 11월 조, “己巳, 彰義軍節度使·檢校司空·同平章事吳少誠卒”(429쪽); 『구당서』 권145, 오소성전, 3947쪽; 『唐大詔令集』 권63, 「冊贈吳少誠司徒文」, “惟元和四年歲次己丑十二月壬申朔二十七日戊戌, …… 故彰義軍節度·度支營田·申光蔡等州觀察處置等使·光祿大夫·檢校司空·同中書門下平章事·使持節·蔡州諸軍事·兼蔡州刺史·上柱國·濮陽郡王吳少誠, …… 今遣使權知宗正卿李詞·副使起居舍人裴度持節, 冊贈爾爲司徒. ……”(344쪽).

이희열의 신임 속에 그들과 거의 일체화된 관계를 맺어 나갔다.

정원 2년(786) 4월 진선기가 이희열을 죽이고 회서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7월 오소성이 진선기를 죽이고 절도사에 임명되었는데, 초기부터 반역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평로군 집단의 반역적 속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해 덕종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4왕의 난 이후 덕종이 할거 번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려고 한 '고식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후에도 오소성은 지속적으로 주변 번진의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였다. 즉 이남 등의 할거 번진은 그들에 대한 덕종의 태도와 비슷하게 불필요하게 조정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지만, 오소성은 특히 이전 영역의 회복을 위해 매우 공격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정원 15년(799) 8월 오소성은 마침내 陳許 번진을 공격하였는데, 명백히 '反'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자 덕종도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고 다음 달인 9월 17개 번진군에게 오소성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 안에는 成德·幽州·魏博·淄靑의 이름도 보이는데, 그들이 이전에 회서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같은 할거 번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토벌전에 참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들은 오소성에 의한 혼란을 틈 타 언제든지 세력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었다. 또 이듬해(800) 5월 당군이 대패하자 산남동도절도사 于頔가 남쪽의 漢南 지역을 점거할 뜻을 품었다. 당조와 번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누구도 반역을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덕종은 우적에 대해 고식의 태도를 보였다. 당시 덕종의 고식정책은 할거 번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선이 조금 교착되는 듯하자 같은 해(800) 10월 오소성이 잡자기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토가 자칫 다른 번진에게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달 덕종도 이에 응하여 전쟁이 종료되었다.

덕종이 오소성 토벌에 실패한 것은 할거 번진에 대한 당시 조정의 실

력을 엿보게 한다. 즉 조정과 할거변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아직 조정이 할거 변진을 제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대규모 군대 동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덕종이 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소성은 거의 손해가 없었지만, 덕종은 체면을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할거 변진의 위세는 조정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11.15. 투고 / 2020.12.15.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Abstract]

The Huaixi Province in Zhenyuan Period Under the Reign of
Tang Dezong

Cheong, Byung-jun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 of Provincial Command System in the light of the Huaixi Military Commissioner Wu Shaocheng's stance after the Jianzhong Incident. Wu Shaocheng was one of the Autonomous Provinces, but had the different side from them. Namely, he made efforts to change the conditions rather than to maintain the existing situations. Of Course, other Autonomous Provinces did not intactly accept the present circumstances, but differed in manner of ways.

In the fifteen year of Zhenyuan Period, Dezong ordered seventeen Provincial Commands to suppress Wu Shaocheng. This was the only large-scale military mobilization of Dezong after the Jianzhong Incident. Autonomous Provinces such as Chengde, Youzhou, Weibo, and Ziqing were included in this military action, but it showed Dezong's limitation because they had the possibility of conspiracy to expand their power by taking advantage of the turmoil of Wu Shaocheng.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when the Tang army was thoroughly defeated by Wu Shaocheng, Shannandongdao Military Commissioner Yudi wanted to occupy the south of Hanshui. This is important to show that whe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the Provincial Command was broken, anyone could attempt treason. In October of the same year, Wu Shaocheng suddenly withdrew his troops because his land could be come under threat by other Provincial Commands, and in the same month the war come to an end as he intended.

The failure of Dezong's suppression of Wu Shaocheng indicated that the Tang Dynasty had not dominated the Autonomous Provinces yet and the latter had advantage over the former.

□ Keyword

Tang Dezong, Huaixi Province, Wu shaocheng, Autonomous Province, Li Shigu

[참고문헌]

1. 사료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中華書局標點本)

『唐六典』, 中華書局, 1992.

『元和郡縣圖志』, 中華書局, 1983.

『唐大詔令集』, 商務印書館, 1959.

『太平廣記』, 中華書局, 1961.

『南部新書』, 中華書局, 2002.

吳廷燮 撰, 『唐方鎮年表』, 中華書局, 1980.

김택민 주편, 『역주 당육전』 상, 신서원, 2003.

2. 연구논저

김문경, 「唐代 高句麗遺民의 藩鎮」, 『唐代的 社會와 宗教』, 승진대학교출판부, 1984.

정병준, 「李正己 一家 藩鎮과 高沐 -온건파와 강경파의 내부분열과 대립」, 『역사학보』 180, 2003.

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

정병준, 「『구당서』·『신당서』 등에 보이는 ‘反’ 용례 비교 검토 -신라사의 반란 용례와도 관련하여」, 『중국고중세사연구』 46, 2017.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정병준, 「唐 德宗代 淮西節度使 李希烈의 稱帝와 그 성격」, 『중국사연구』 126, 2020.

孟彥弘, 「“姑息”與“用兵” -朝廷藩鎮政策的確立及其實施」, 『唐史論叢』 12, 2010.

- 武强, 「唐淮西節度使相關問題考論」, 『史學月刊』 2010-4.
- 樊文禮, 「唐淮西節度使略論」, 『煙臺師範學院學報(哲社版)』 1994-2.
- 傅璇琮, 『唐代科學與文學』, 陝西人民出版社, 1986.
- 嚴耕望, 「唐代方鎮使府僚佐考」, 『唐史研究論考』 龍門書店, 1969.
- 劉玉峰, 「評唐德宗“姑息”藩鎮說」, 『學術月刊』 1993-7.
- 劉玉峰, 『唐德宗評傳』, 齊魯書社, 2002.
- 張國剛, 「唐代藩鎮軍將職級考略」,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文津出版社, 1994.
- 宮崎市定, 「宋代州縣制度の由來とその特色」, 『宮崎市定全集』 10, 岩波書店, 1992.
- 愛宕元, 「唐代後期の政治」, 松丸道雄 等 編, 『中國史』 2, 山川出版社, 1996.
-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 王賽武, 「당대 정치사에서 양자강 종류의 역할」,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 위체트 엮음, 위진수당사학회 역, 『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
- 찰스 피터슨, 「중흥의 완성: 憲宗과 藩鎮」,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 위체트 엮음, 『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
- C. A. Peterson, “Court and province in mid-and late T’ang,” in Denis Twitchett,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London · New york ·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譯, 『劍橋中國隋唐史(589-90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